일엽 스님 사상 담긴 문집 '한자리에'



김일엽 전집
김일엽 · 박진영 지음/ 김훈 옮김/ 8만3400원

일엽문화재단 · 김영사, 전집 출간
스님 문집 3권 · 평전 1권 묶어
생명사상과 구도 열정들 확인돼
주요 종단 교육기관 등 증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들에게 일엽 스님(1896~1971 · 사진)은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스님이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 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신여성으로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펼치며 근대기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선 사상가였다. 그러면서 문인이자 언론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가부장제라는 구습으로 인한 성차별과 존재의 아픔 등은 구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불문(佛門)에 들어 수행자가 됐다. 출가로 이끈 만공 선사는 일엽 스님에게 글을 쓰지 말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고, 일엽 스님은 이를 27년동안 지키며 오롯이 수행정진했다.

27년 만에 절필을 깨고 법문과 에세이를 모은 일엽 스님의 첫 저서가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이다.

이후 일엽 스님은 수필집 〈청춘을 불사르고〉(1962)와 수상록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를 잇달아 발간했다. 일엽 스님이 원적한 뒤에도 스님의 저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했지만, 전집이 나온 적은 없었다.

김일엽문화재단(이사장 월중 스님)은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엽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오롯이 담아낸 '김일엽 전집'을 김영사에서 펴냈다"고 밝혔다.

총 4권으로 이뤄진 '김일엽 전집'은 스님의 문집 △〈어느 수도인의 회상〉 △〈청춘을 불사르고〉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와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수가 저술한 평전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철학〉으로 구성됐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은 '실성(失性)한 인간'으로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것은 나를 알아 얻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일엽 스님은 종교 교육을 위한 글이자 포교문인 이 책을 통해 "생(生)의 채비가 곧 사(死)의 대비"라고 말하고 있다.

〈청춘을 불사르고〉는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청춘을 얻고자 했던 구도자 일엽 스님의 치열한 구도기다. 이 책은 전작인 〈어느 수도인의 회상〉에 속한 법문과 글을 갈무리하고 보완해 새로이 엮은 것으로, 출간 당시 수많은 이들을 구도의 길로 이끌었다. 김일엽 문집의 마지막 책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는 사랑이라는 절벽, 행복과 불행의 갈피를 헤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은 일엽 스님의 저서를 '서사와 은유로 풀어낸 생명과 깨달음의 법문'이라고 한줄로 평했다.

일엽문중 4세손인 경완 스님은 "생명사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스님은 이미 1960년대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갈등을 반복하는 현대사회에 스님의 글은 여러 가르침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일엽문화재단은 완간된 전집을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승가교육기관과 4년제 대학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에 증정할 예정이다.

한류는 이미 천 년 전에 시작됐다



깨달음의 빛, 청자 1·2
정찬주 지음
불광출판사
각권 1만8000원

한류로 대표되는 K-콘텐츠는 세계 문화 시장의 기린아로 평가받는다.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한류의 시초는 무엇일까.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정찬주 작가는 한류의 시초로 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이름 모를 도공들이 빚어낸 천하제일의 명품 '고려청자'를 꼽았다. '고려청자'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 그것이 정찬주 작가가 최근 발간한 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1·2〉다.

강진 비색청자를 흥망성쇠를 그린 이 책을 통해, 정찬주 작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자연·세계관이 담긴 청자와 같은 훌륭한 보물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 안에 살아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과연 무엇이 정말 한국적인 것인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한다.

소설 1권은 바다의 왕 장보고가 우여곡절 끝에 당나라 청자 기술을 신라 탐진으로 들여오는 이야기다. 그동안 책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가 적잖이 소개됐지만, 그가 고려청자의 대부(代父)이자, 이 땅에 청자 생산기술을 전수한 인물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설은 장보고와 청자의 인연을 들려주며, 새로운 관점에서 위인의 삶을 따라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소설 2권은 청자가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장보고 피살 후 청해진이 폐쇄되면서 판로가 막힌 탐진청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무위사, 보림사, 태안사, 성주사, 쌍보사 등 몇몇 선찰(禪刹)에서 불단에 놓을 청자를 주문하긴 했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다. 고려청자가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청자를 만든 수많은 고려 도공들의 장인정신 덕이었다. 그들에게 청자는 생계수단인 동시에 자긍심의 원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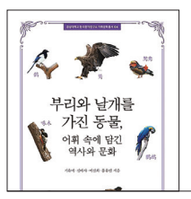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지금 것들은 지난 것들의 유산이다. 이 책은 말한다. 한류라는 더없이 좋은 시절인연을 우리가 가진 것 중 진정 가치 있는 것들에 눈 뜨고 그로부터 새것을 만들어 나가자고. 뿌리를 알고 가꾸면 가지가 굳어지고 열매가 야물어지는 법이다.

신중일 기자

고려인이 연근·연잎 먹지 않았던 이유는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김시현 · 신근영 · 이진숙 · 조성덕 · 최승은 지음
따비/ 2만원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기유미 · 신아사 · 이선희 · 홍유빈 지음
따비/ 2만원

사물의 이름(名)을 지어 붙이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식물, 동물의 이름에서는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겼다.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가 펴낸 어휘문화총서 시리즈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문헌 속에서 식물와 동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활용됐는지를 살펴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시리즈인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는 각각 식물과 조류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핀다.

불교와 연관된 꽃과 나무는 단연 연꽃이다. 연꽃은 인도가 원산지로 불교와 함께 동쪽으로 전파됐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청정함과 서방극락정토를 상징한다.

연꽃은 한반도에 삼국시대부터 심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기록은 없다.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연(蓮)은 대부분 사찰 이름과 지명이며 실제적인 연꽃 내용은 〈삼국유사〉 8회, 〈고려사〉 2회다.

그러다보니 연(蓮)이 포함된 대부분의 어휘들은 불교와 연관돼 있다. 부처를 모신 감실인 연감(蓮龕), 불교를 의미하는 연교(蓮敎), 연방(蓮房·승방), 연화세계, 연화왕생 등 다양하다.

서긍이 저술한 〈고려도경〉에 연꽃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연근(蓮根)과 화방(花房)을 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족(佛足)이 탔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 서긍의 언급을 통해 당시 송나라에서는 연근과 연밥을 식용했고, 고려인들은 식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서도 불교 이야기는 확인된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는 특징으로 인해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신성시되기도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조장(鳥葬)이다. 티베트 불교는 사체(死體)를 독수리 등이 먹음으로써 사자(死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다. 하늘을 날 뿐 아니라 물에 떠다니거나 잠수

경성대 한자硏 어휘문화총서
기록 속 식물, 조류 조명 눈길

하기도 하는 오리는 천상계는 물론 지하세계와 교통하는 메신저로 여겨졌다.

작은 참새는 한국에서는 귀리를 가리키는 한자어 작맥(雀麥), 어린 찻잎을 따서 만든 작설차(雀舌茶)처럼 작은 것에 붙이는 이름이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참새의 눈물에 빗대 '스즈메노 나미다 호도노겟큐[雀の涙ほどの月給]'로 표현한다. 동양에서는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기도 하고 반가운 손님이 오는 징조이기도 한 길조까치는 서양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취급받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새였고 히브리 신화에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났음을 알린 비둘기는, 현재 한국에서는 닭둘기, 쥐둘기라고 불리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과 식물들의 어휘들을 살피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맺어온 생명들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재미는 여기에 있다.

신중일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